

## ◀ 랑누리 · 종교

# 신神, 의인화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통해 본 신(神) 개념

## 줄피까르 알리샤 지음

# Anthropomorphic Depictions Of God

## The Concept of God in Judaic, Christian & Islamic Traditions

## Representing the Unrepresentable

Zulfiqar Ali Shah

三  
卷

۷۶۷۲۷۸۱

신神, 의인화

Anthropomorphic Depictions Of God  
- The Concept Of God In Judaic, Christian And Islamic Traditions  
Zulfiqar Ali Shah

**2017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1434AH/2013CE  
P.O. BOX 669, HERNDON, VA 20172, USA  
[www.iiit.org](http://www.iiit.org)

LONDON OFFICE  
P.O. BOX 126, RICHMOND, SURREY TW9 2UD, UK  
[www.iiituk.com](http://www.iiituk.com)

*This book is in copyright. Subject to statutory exception  
and to the provisions of relevant collective licensing agreements,  
no reproduction of any part may take plac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 신神, 의인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통해 본 신(神) 개념

줄피까르 알리 샤 지음

^^남람누리



## 저자소개 —

줄피카르 알리 샤 Zulfiqar Ali Shah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 이슬람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으로 이슬람 연구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 웨일스 대학에서 신학과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웨일스 대학, 이슬라마바드 국제 이슬람 대학, 노스플로리다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를 포함해 5개 국어에 능통하다.

지난 25년간 종교 간 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북아메리카 여러 무슬림 공동체에서 종교지도자로 봉사했고 북미이슬람연합 ICNA Islamic Circle of North America에서 전국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북미이슬람법학연구회 사무국장과 위스콘신주 밀워키시 이슬람 사회 종교지도자이자 저명한 연설가로, 비교종교학, 신학, 이슬람, 꾸란, 무함마드 언행록, 비교 이슬람법학, 신비주의, 이슬람 문명, 아브라함 종교 및 여러 현안 등 다양한 주제로 국제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문학적 계산과 라마단: 이슬람법학 담론’ 등 여러 학술논문과 책을 썼다.



## 이 책에 관하여 —

국제이슬람사상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의 북스인 브리프 Books-In-Brief 시리즈는 독자가 연구소의 저작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추려 만든 축약본이다. 짧고, 읽기 쉽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다.

줄피까르 알리 샤 Zulfiqar Ali Shah 의 ‘신을 의인화하다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보는 신(神) 개념’은 2012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아브라함의 세 종교 경전, 즉 히브리 성서, 신약성서, 꾸란을 분석하며 ‘신과 의인화’ 문제를 세심히 살핀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신을 제대로 설명하려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저자는 유대-기독교 세계관과 이슬람을 대비하면서 각 종교가 신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왔으며, 표현 방식은 어디서 비롯했는지, 각 종교의 경전, 신학 논쟁, 교회의 칙령,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의인화에 반대하는 이슬람의 입장과 타우히드(하나님의 유일성) 신학 담론 그리고 이슬람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아흔아홉 이름을 검토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검토한다. 저자가 검토한 항목들이 어떻게 이슬람 신학의 기초가 되었는지,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닌 신학 명제와 관점이 엄격한 일신론에 반하지는 않지만, 일신론에 충실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

오늘날과 같은 합리적 시대에, 신을 인식하는 지식 기반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세속주의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지금, 신을 의인화해 보는 관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의인화 개념과 신성(神性)을 신체로 표현하는 묘사는 현대 무신론의 주요 바탕이 되었다. 전근대적 의인화나 신체화 개념으로 신성을 인식하는 관점이, 탈근대시대의 현대인에게까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전근대 관점은 신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 신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묘사했고, 신을 과소평가하여 신성을 폄하했으며, 결과적으로 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줄피까르 알리 샤의 연구는 역사적 논란이었던 신학의 핵심 주제 논의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 차례 —

들어가는 말	13
1. 의인화 문제와 범주 정의	19
2. 히브리 성서와 의인화	37
3. 신약성서와 의인화	57
4. 꾸란과 의인화	99
5. 결론	123
참고 자료	138



## 들어가는 말 —

이 책은 유대교의 히브리 성서, 그리스도교의 신약성서 그리고 이슬람의 꾸란에 등장하는 의인화와 신체주의(신(神)을 인간 신체에 해당하는 용어, 범주, 형태 등을 사용해 묘사하는 것)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의인화와 관련하여 신학, 성서 해석, 해석 비평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신학의 흐름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신자 가지닌 신을 인식하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한다.

신은 신의 윤리적 모습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정의, 평등, 공정, 상호 존중, 공감, 사랑, 배려, 자애 등이 두드러지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반면, 인간은 신이 내린 기본 윤리 계명을 어기고 신의 선의를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창조함으로써 돌려주었다. 의인화한 신 묘사는 표현할 수 없

는 초월적 존재를 인간이 인지하는 공간 구조 영역으로 끌어내리려는 숨겨진 목적과 이기적 욕구에 쓰일 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초월적 신성을 개인화, 민족화, 의인화하여, 신을 사실상 크고 강하고 치명적 힘을 지닌 인간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신에게 개인, 공동체, 민족 문제와 실천, 사상, 선호 등을 대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족, 부족, 인종, 정체성, 이념, 신학 등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절대적 존재를 창조하려 했다.

특정 지역, 인종, 역사적 인물, 신성이나 법에 속한 특정 개념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격상시키다 보니, 인류는 결국 유일한 절대자 대신 내재적으로 제한된 본질과 가치에 불과하고 열등한 여러 절대자를 하나님 옆에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우상숭배적 도발, 민족화 혹은 개인화된 신이라는 인간의 생각이 반발을 낳고, 결국에는 무신론으로 전락하고 만다. 계몽주의의 이신론(理神論)이 과학적 불가지론으로, 무신론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정된 결과다. 과학이 냉정한 발전을 하면서, 세속적 인본주의와 유물론 철학이 종교와 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적 정서가 되고, 칼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주장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열쇠는 내세의 천국 경외가 아닌, 현세의 물질적 소비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종교의 존재 이유가 삶의 의미를 해결하고, 물질적 문제에 정신적, 윤리

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죽음 이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기심, 탐욕,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고 즉각적 희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것, 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혹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낡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리하여 공리(功利) 영역에 반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실증적으로 실현가능한 과학적 사실로 신을 제시하지 않는 초월적 타자(他者)는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종교는 유아적 공포와 경험의 산물이라 무시했다. 그 결과 신앙에 비극적 상실이 찾아왔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 [Harvey Cox](#) 가 베스트셀러 ‘세속도시 [The Secular City](#)’에서, 초월적 신성이 아닌, 신의 죽음과 인간의 이성 신성화를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과학적 합리주의와 세속적 인본주의가 대표하는 서구 사상의 멋진 신세계가 우리의 의식에서 신과 종교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고통, 불평등, 폭력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인류가 치른 죄악의 전쟁은 세속적 이념과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깃발 아래 치러졌다. 혹자는 계몽주의의 희망은 아우슈비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꿈은 볼셰비키 혁명과 중국 혁명 그리고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자본주의와 과학의 위용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과거 몇 세기 동안 무신론 사상은 허무주의와 무

목적성이라는 뿌리 깊은 난제를 낳았고, 이로 인해 종교에서 끌어낼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신앙과 우주적 계획, 목적 있는 삶이라는 명제에 반하는 허무주의와 무목적성은 이성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신성 추구는 의미 추구이며, 존재 목적 추구이기에 인간 본성에 내재한다. 인간의 신격화는 보편적 열망의 해결이 아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존재의 근원이자 의미를 찾는 인간 본성의 열망에 궁극적 답을 주는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초월적 타자에 있다. 인류의 고통, 불안, 열망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단지 믿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신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신의 초월적 근원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종교는 주관적 경험이며, 측량이 아닌 내적 감성과 소통을 통해 신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적 실천과 경건하고 헌신적이며 윤리적인 삶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이기심과 탐욕, 오만과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 인류와 존재, 세상의 통합성을 인지하고, 이로써 인류는 전능한 하나님과 진실로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

많은 폭력과 불의가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신을 우리의 모습으로 재창조해왔음을 인식하고, 다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적합하게 재조정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이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전근대적 방식으로 신성을 의인화하거나 신체로 표현하는 개념은 신을 우리가 사는 세계로 끌어내려 신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묘사했고, 신을 작은 존재로 폄하했으며, 신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당연히 느껴야 할 경이와 경외가 사라지게 했다. 이러한 전근대 개념으로는 탈근대, 탈세속적 신을 추구하는 현대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 1. 의인화 문제와 범주 정의 —

세속주의, 철학적 유물론, 불가지론, 노골적 무신론은 21세기 종교 지형을 위축시켜 현신적 유신론자를 소수로 만들었다. 여러 나라에서 세속화 과정이 진행되었기에, 서구 신앙의 미래는 비관적이라 할 수 있다. 신(神)과 신앙의 죽음은 유신론 일반, 특히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초월적 신 담론의 절정이다.

지난 수 세기 간, 철학자, 과학자, 지식인은 유신론의 신 개념이 지나치게 의인화되어 있고, 원시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복잡하며, 초월적 신과 종교 제도가 현대 사회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더불어, 신과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과 우주를 정의한 해석에서 벗어나, 인간의 과학, 문화 산물을 해방하기 위해서 ‘신의 죽음’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주장과

견해는 인간을 자율적이고 문화와 운명을 제한 없이 개척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 투사 이론이 있다. 인간의 원초적 의식 속에 공포와 열망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여 자신을 보호해 줄 존재로 만들어낸 것이 신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투사 이론은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면서 신앙 역시 급격하게 늘어난 사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인간은 원시 상태에서 정교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원시의 산물이라는) 종교를 더욱 지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럼에도 철학과 과학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에 신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칭송받는다. 오늘날에는 우주의 창조주로 숭배한 신이 더는 인간과 자연의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모습으로 신을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인간이 신적 존재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투사 이론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보다 약 6백 년 앞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시인인 크세노파네스 Xenophanes (BC 570–470)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인간을 둘러싼 이해하기 힘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신과 종교가 비롯했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1561–1626)은 인간의 사물 이해가 “우주의 본성보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 있음이 명백하다”고 썼

다. 이런 의미심장한 관찰이 새로운 시대, 즉 과학 시대를 열었다.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은 의인화하고, 과학과 경험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의인화에서 벗어나게 한다.<sup>1)</sup>

인간의 사상과 문화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보편적 경로를 제시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풍트넬 *Bernard Fontenelle* (1657-1757)은 “인간은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을 통해 자신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사람의 통제를 넘어선 자연의 힘을 두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이 삶과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sup>2)</sup>

다양한 종류의 강력한 자연 현상으로 원시의 신성한 존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원시의 여러 신은 인간의 사고와 환경의 산물이기에 본성상 의인화될 수밖에 없다. 원시 신들의 본성, 특성, 속성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원시인은 자신의 신들에게 물리적 신체와 육체적 특성 그리고 조잡하게 의인화한 특징을 부여했다. 그보다 교양있고 세련된 집단은 사랑이나 공감, 영적 존재, 초월적 범주 등 보다 발전한 형태로 신을 묘사한다. 신을 인식하는 개념은 문명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데이빗 휴 *David Hume* (1711-1776)은 현대에 와서 이런 접근 방식을 선도한 인물이다. 그는 신성의 의인화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신성 개념은 이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 것이다. 신이라는 생각을

진화론 용어로 설명하면서, 일신교적 종교 발생 이론 대신, 우상숭배나 다신교를 최초 종교 형태로 간주한다. 흡이 보기에 신이라는 생각의 기원은 인간이 자신의 희망과 공포를 의인화해 외부 세계에 투영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삼고 숭배한 데서 유래한다. 3)

알 수 없는 모든 힘을 의인화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이 신을 믿게 하는 근원이라는 흡의 분석은 오귀스트 콩트 [Auguste Comte](#),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 [Ludwig Feuerbach](#), 에드워드 타일러 [Edward Tylor](#),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토마스 드 퀸시 [Thomas De Quincy](#), 로버트 브라우닝 [Robert Browning](#), 매튜 아놀드 [Matthew Arnold](#), 제라드 맨리 홉킨스 [Gerard Manley Hopkins](#),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 장-폴 샤르트르 [Jean-Paul Sartre](#), 모리스 메를로 퐁티 [Maurice Merleau Ponty](#),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 아예르 [A. J. Ayer](#), 클렘케 [E. D. Klemke](#) 등 현대 지성, 철학자, 사회학자가 공유하는 가정이자 논증의 바탕이 되었다. 이를테면 포이에르바흐는 “신학은 인류학이다. …… 신앙의 대상, 즉 그리스어로 테오스 theos 라 부르고 우리말로 신이라 일컫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신성 개념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교의 역사는 …… 인간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4) 포이에르바흐는 인간의 신이 인간이라고 하며, 전통적 종교는 인민의 아편에 불과하며, 인민을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는 종교를 없애야 하고, 과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선택 이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 Charles Darwin 은 신이 창조자이자 설계자이며 자연은 신의 의도가 실현된 결과라는 유신론을 반박했다. 5) 성서의 형이상학은 자비로운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개념 위에 서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류의 타락, 신의 개입, 예수의십자가형과 부활을 통한 속죄 개념으로 구성된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 즉 자연이 자율적으로 진화한다는 해석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의 과학혁명 보다 더욱 강력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렸다. 다윈의 이론은 기독교 형이상학의 기초를 공격해 효과적으로 흔들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존재인 신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창조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의 신성한 개입 없이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존재와 유지, 연속을 위해 신이 끼어들 자리는 당연히 없다.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19세기 모든 학문의 지배 원칙이 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과학자, 인류학자, 문헌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박물학자 등은 천상이나 공리 영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 즉 자연과 인간 정신, 심리 혹은 인간 사회에서 신을 찾으려 했다. 그들 모두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의 경험에서 신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인간이 생각을 발전하는 정신적 과정과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 내에 신이 있었던 것이다.

신성 개념이 인간의 내적 세계에서 유래했다는 가정 하에, 많은 학자가 신과 신앙의 정확한 유래를 밝히기 위해 광범한 연구를 진행했다. 빌헬름 슈미트 신부 Father Wilhelm Schmidt 같은 일부 학자가 자신의 발견을 통해 모든 곳의 원시 종교가 본질적으로 일신론적 신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증명했지만, 그런 주장은 소수 의견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 인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심지어 일부 신학자마저도 종교의 기원은 애니미즘, 물신주의, 토테미즘 등 원시 문화의 단순한 형태에 있으며, 그것이 발전하여 다신교, 단일신숭배, 일신교 등 고급한 형태의 종교로 발전하여 마침내 오늘날 신앙의 중추를 이루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같은 현대 일신교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학자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즉 신은 자신만의 객관적인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필요, 열망, 신적 존재에 느끼는 공포 등에 기반한다. ‘신(神)’이라는 용어는 단지 인간의 내적, 외적, 사회적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힘을 구체화하고 인간화, 혹은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신 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 담론이며, 위에서 언급한 포이에르바흐의 용어를 차용하자면, “신학은 인류학”이다. <sup>7)</sup>

20세기에도 많은 학자가 같은 방식으로 신성을 이해했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Claude Lévi-Strauss는 “종교는 자연법칙의 인간화와 자연의 의인화로 구성된다.” <sup>6)</sup> 현대 인류학자

스튜어트 거스리 Stewart Guthrie 는 “종교는 의인화다.”라고 했다. 7)

이러한 관점을 감안하면서 세계 여러 신앙을 살펴보면, 종교 경전 대부분에 다양한 의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학자들은 경전에서 의인화를 제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 책에서 모든 종교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유래하는 세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검토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히브리 성서나 구약성서에서 신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인간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사람을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신약성서에서는 신이 완전한 사람의 형상, 예수로 나타난다. 많은 유대교 학자와 기독교 교부가 이론적 저항을 펼쳤지만, 육체적으로 인간 형상을 한 신이라는 개념은 두 종교 모두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논의한다.— 이슬람의 꾸란은 일관되게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고, 신성을 의인화나 신체의 범주로 표현하는 것을 경계하는 성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유대교나 기독교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부 무슬림 종파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현대 과학자까지 종교가 신을 의인화시켜서 이해하는 행태를 반박하고 비판해왔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종교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과학과 과학적 형이상학의 발전 그

리고 자연에 대한 기계적 해석 외에, 신의 본성을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세속의 인간은 어떤 면에서든 의인화되고 사람처럼 생겼으며 한계를 가진 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스스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세속 세계에서 인간은 인간과 같은 유한한 신이 없어도 행복하게 산다. 동시에 소외와 고립, 주관주의, 상대주의, 허무주의 등 여러 번민도 안고 산다. 더욱 불길하게도, 도스토옙스키 *Dostoyevsky*의 말마따나, “만약 신이 없다면, 무엇이든 허용된다.”

8) 는 것이다.

현재 종교적 가치는 힘이 없다. 윤리적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다. 적어도 미국과 유럽만 보면 두 가치 모두 유례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에서 가족의 가치는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3월 9일 자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점점 더 비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다. 9) 게다가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인이 실천하는 신앙은 약 20년 전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삼위일체, 육화(肉化), 원죄 등의 기독교 교리나 순결, 생명 보호, 가족의 존엄 등 윤리적 가치를 포기하거나 거의 무시하듯이 해석한다. 현대의 신은 수 세기 전처럼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현대인은 초월적 유신론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전 세계로 보면 여전히 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류의 다수는 다음 꾸란 구절이 언급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자신

조차 잊으리니……” (59:19)

지금까지 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해 두 관점으로 비판했다. 첫 번째는 의인화다. 이 비판이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신을 물질적으로 묘사한다면 신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유래할 수밖에 없고, 그 묘사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크세노파네스 아래 이런 비판을 한 이들은 신이 물질세계를 초월하고 인간과 분명히 다르므로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성질을 부여해 묘사하면, 아무리 신을 위대하게 표현한다 해도 신의 완벽성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라리 묘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비판은 ‘발명’에 관한 것이다. 신이 실존하지 않는 허구라고 비판한다. 존재론적으로 신은 인간에게 의존한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속성, 특성을 외부 세계에 투영해 신을 발명했기 때문이다. 스튜어트 거스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종교가 의인화라는 말은, 종교가 인간의 속성을 신에게 부여하는 것 혹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속성을 자연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자, 즉 인간의 속성을 신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는 종교가 특정 신에게 인간의 특수한 행위 능력(이를테면 사랑)을 결부시키고, 그 능력을 관장하는 인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후자, 즉 인

간의 속성을 자연에 부여한다는 의미는 종교가 자연에서 신을 발견하여 자연을 인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비판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핵심 용어인 의인화 anthropomorphism 와 초월 transcendence 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 — 의인화

의인화 Anthropomorphism 란 용어는 그리스어 안트로포스 Anthropos (인간)와 모르페 morphe (모양)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이 용어가 만들어진 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18세기다. 의인화에 관한 일반적 정의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의 속성을 자연현상에 투사하려는 지속적 경향 혹은 비물질적인 영적 실체를 물질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형태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 용어를 종교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신성한 존재를 인간의 모양이나 범주로 경험하고 표현하여 그 대상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인화는 인간 전체나 일부의 모습을 신(神)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경험주의 학파는 신과 종교의 영역을 제한하여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시각적 이미지나 신의 모든 측면을 인간적 속성으로 묘사하는 신체적 의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의인화 비판은 지나치게 심해져, 신성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측면조차도 인간의 영역과 연결된다면 그 역시 의인화라 공격했다. 그렇게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주장들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고 결국, 단순히 종교에 대

한 혐오를 담는 표현 수단 또는 비난을 위한 용어로 전락했다.

## — 육화(肉化)

육화 *Incarnation*는 의인화의 일종이다. 신을 인간의 범주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의인화지만, 신이 진짜 인간의 모양과 형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육화’라는 용어는 인간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야콥 노이스너 *Jacob Neusner*는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신을 제시하고, 감정과 미덕에 있어서 인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며,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육화를 정의했다. 10)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데, 이는 육화의 절정이며, 신체화 *corporealism*이자 의인화기도 하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겠지만 말이다. 만약 신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하나의 사람, 인간으로 나타난다면, 게다가 극단적 상태, 인간적 한계, 고통스러운 죽음을까지 경험한다면, 이는 신체화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신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는다는 개념. 그것이 ‘신의 죽음’이라는 논리에, 신이라는 존재가 현대 사회와 문화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기여한 바는 없을까? 이 주장의 논리는 분명하다. 현대인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게 놔둔 신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금지한 과일을 따 먹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수 세기 동안 수십억 명의 무고한 남자와 여자, 어린이를 지옥 불에서 고문하다가, 선량하고 올바른 사내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피 흘림을 통해 대속하게 하는 신은, 현대인이 보기에, 정의, 자비, 자애, 정당성의 관점에 심각한 회의를 품게 한다. 십자가를 통한 피의 대속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없애거나 줄이지도 못하는 신은 실용주의와 상대주의,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을 두는 현대 문화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런 신은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의문스럽고, 역설적이며, 인간과 지나치게 비슷하다. 어쩌면 예수가 바로 신이므로, 로마인이 예수를 물리적으로 죽임으로 인해, 신의 죽음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했을지도 모른다. 요약하자면, 신성의 인간화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신성화를 초래했다. 신성 개념을 폐기한 인간은 초월적 영역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인간은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신에게 탄원하던 습관을 버리고, 과학과 기술이 제공하는 해결책에 기대기 시작했다.

## — 초월: 종교적 개념

신이 인간의 세계보다 높은 곳에 분리되어 존재하면서 이 세계를 지속적으로 섭리에 따라 지도한다고 말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초월 *Transcendence*이다. 신에게 속한 여러 신

성과 초자연적 속성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초월이다. 신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창조주이므로, 우주 시공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초월이란 용어는 신 자체와 신의 존재, 절대성, 힘, 권위에 관한 개념이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경험주의자가 생각하듯 의미 없거나 공허한 용어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신과 신의 계시는 이 세계에 충만한 의미의 근본적인 기초이자 근원이다.

초월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는 ‘나는 올라간다’는 뜻인 라틴 어 스칸도 *scando*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에 접두사 as, de, trans가 붙어서 ‘ascend’, ‘descend’, ‘transcend’ 같은 단어가 탄생했다. *transcend*를 글자 그대로 보면, 무엇이 무언가에서 ‘나와서 올라가다’, 혹은 무엇의 ‘위로 올라가다’, 무엇을 ‘지나서 넘어가다’ 등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초월하는 존재와 초월 당하는 존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두 존재 간의 관계를 가정한다. 초월이란 용어는 은유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 책에서 초월이란 용어는 신의 유일성과 타자성을 의미하고, 신이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와 관계하는 독특한 양식을 말한다. 신은 세계의 바깥에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모든 유한한 존재와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신의 힘은 유한한 존재

의 영역에서 소진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초월한다. 신은 유한한 존재들과 결코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월적 존재인 신은 공간과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존재한다.

### — 초월: 철학적 해석

위에서 논의한 초월의 종교적 개념은 철학의 해석과는 다르다. 철학에서 초월은 '신의 내재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철학에서 초월의 개념은 신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강조한다. 신의 존재를 인간의 모든 속성이나 특성에서 분리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 세계와 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인간의 인식 체계를 넘어선다고 본다. 철학의 극단적 초월 개념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주의자로부터 시작해 필론 Philo (역주: 필론, BC 20 - AD 50년 경,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과 네오플라톤주의자를 거쳐, 아브라함의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에 영향을 끼쳤다. 철학의 초월 개념에 따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마치 태양이 빛을 발산하듯이 현실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신이다.

### — 내재

인간이 속한 세계에 존재하는 신 혹은 신성을 가르키는 용어가 '내재(内在)'다. 이는 '초월'이란 용어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

이다. ‘내재 *immanence*’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뜻의 라틴어 ‘마네레 *manere*’에서 유래했다. 여기에 접두사 *in*이 붙어서 ‘~ 안에 머물다’는 뜻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떤 것(A) 안에 머무는 것(B)은 어떤 것(A)과 구분되는 다른 것(B)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B)은 어떤 것(A)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사실을 유의한다면, ‘내재’란 용어가 ‘초월’의 완전히 반대 개념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신의 초월 개념은 신이 인간 세계에 관계함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속한 세계와 분리된 존재로서 관계하는 신은 인간이 인지하는 세계를 초월한다. 따라서 초월적 신은 창조와 피조물의 근원으로, 창조한 존재이자 유지하는 존재로 인간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신은 신의 영원한 힘, 섭리, 법칙, 유지, 돌봄 등 무한하고 절대적인 다양한 속성과 특질을 통해 피조물의 모든 측면에서 물질 세계 속에 존재한다. 반면, 존재론적으로는 물질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다. 따라서 초월성 혹은 ‘자연을 넘어섬’을 내재성 혹은 (인간 세계 내에) ‘신의 머무름’과 대비할 때, 두 존재는 하나이며 같은 존재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인간의 불충분한 언어로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초월과 내재는 상호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관성을 지닌다. 초월과 내재는 일부 요소를 포함하면서 보완한다.

‘초월성’에 관한 유신론적 이해는 아브라함 신앙(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핵심이다. 초월적 신을 향한 믿음은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품성에 깊이 스며든다. 믿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뒤에는 일종의 필연과 급박함이 있다. 진정한 신자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 신의 존재가 되기에, ‘초월하는 존재’에 의해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끌어지게 된다. 믿는 사람에게 신은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원이며, 우주와는 구분되고, 우주의 근원이며, 우주를 유지하고, 섭리에 따라 인도하는 존재다.

아브라함 종교에서 이 초월적 신을 의인화하고 신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다. 유대교 경전(히브리 성서, 구약성서)은 신을 의인화하는 표현과 묘사로 가득하다. 사아디아 이븐 조셉 *Saadia ibn Joseph* (882-942), 모세스 마이모니데스 *Moses Maimonides* (1135-1204) 같은 중세 유대교 신학자와 철학자, 현대의 많은 학자가 다양한 해석법으로 경전의 의인화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히브리 성서에 만연한 의인화는 이런 지식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인간 그리스도의 개념과 ‘육화 *Incarnation*’ 교리 역시 의인화다. 기독교는 신의 초월성과 유일성을 강조하지만, 육화 같은 교리나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버지, 아들,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지상의 하나님,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얼굴과 손 등의 표현은 신의 인간화에 속할 수밖에 수 없다.

이슬람은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이슬람 성서는 초월적 신이 신체주의나 육체적 의인화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히브리 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꾸란  
에 등장하는 신의 초월적 측면과 의인화 경향 모두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 참고 자료 —

- 1) Francis Bacon, *The New Organon and Related Writings*, Fulton H. Anderson, ed. (New York: Liberal Arts Press, 1960), p.52
- 2) J. Samuel Preus, *Explaining Religio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7), pp.43-44
- 3) David Hume, *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 H. E. Root, e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vol. II, p.28
- 4) Ludwig Feuerbach, *Lectures On the Essence of Religion*, Ralph Manheim,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67), p.17
- 5)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New York: Appleton & Co., 1962)
- 6) Claude Lévi-Strauss, *The Savag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p.221
- 7) Stewart Guthrie, *Faces in the Clouds: A New Theor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178
- 8) Kevine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Michigan: Zondervan, 1998) p.368

9) [http://www.cnn.com/2009/LIVING/wayoflife/03/09/  
us.religion.less.christian/](http://www.cnn.com/2009/LIVING/wayoflife/03/09/us.religion.less.christian/)

10) Jacob Neusner, *The Incarnation of God: The Character of  
Divinity in Formative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p.12

11) Michael Fishbane, *Biblical Myth and Rabbinic Mythma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164

12) Neusner, *The Incarnation of God*, p.15

13) Suffrin, A. E. ““God,”” James Hasting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John A. Selbie, ed. (Edinburgh: Kessinger  
Publishing, 1925-1940), vol.6, p.296.  
랍비 신학에 관한 이슬람의 해석을 보려면 다음 책을 참고하라. Abu  
Muhammad Ali ibn Ahmad ibn Hazm al-Zahiri, *Al-Fa'l fi al-  
Milal wa al-Ahwa” wa al-Nihal* (Cairo: Maktabah al-Salam al-  
Alamiyyah, n.d.), vol.1, pp.161 ff

14) Isadore Twersky, *A Maimonides Reader* (New York: Behrman  
House, 1972), p.420.

15) Richard E. Friedman, *Who Wrote the Bible?*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p.28

16) Robin L. Fox, *The Unauthorized Version: Truth and Fiction in the Bible* (New York: Penguin Books, 1992), p.360

17) Charles Bigg, *The Christian Platonists of Alexandria: The 1886 Bampton Lectures* (Oxford: Clarendon Press, 1968), p.102

18) Ju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New York: Harper & Row, 1974), p.89

19) Richard A. Norris, ed. and trans., *The Christological Controvers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p.7

20) John N. D. Kelly, *Early Christian Creeds* (New York: David McKay Co., 1972), p.72

21) Quoted from Norris, *The Christological Controversy*, p.114

22) Alois Grillmeier, *Christ in Christian Tradition*, John Bowden,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p.119, p.125

23) Arthur C. McGiffert,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vol.1, p.223. Notes

24) McGiffert,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1, p.144

25) Adolf V. Harnack, *History of Dogma*, Neil Buchanan, tran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1), vol.4, p.46

26) Harnack, History of Dogma, vol.4, p.47

27) W. H. C. Frend,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p.157

28)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Carl E. Braaten, ed. (New York: Simon & Schuster, 1968), p.78

29) Henry Chadwick, The Early Church (New York: Dorset Press, 1967), p.198

30) Quoted from Harry A. Wolfson, The Philosophy of the Church Fathers, 3r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vol.1, p.452

31) John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8), p.314

32) G. R. Driver, L. Hodgson, eds. and trans., The Bazar of Heraclides Nestoriu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1925), p.370

33) John Hick, ed., The Myth of God Incarnat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p.5

34) Karen Armstrong, A History of God: The 4000-Year Quest of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4), p.131

35) Binyamin Abrahamov, Anthropomorphism and Interpretation of the Qur'an in the Theology of al-Qasim ibn Ibrahim (Boston: Brill, 1996), p.3

36) Ismail R. al-Faruqi, Al-Faruqi, Lois L., The Cultural Atlas of Islam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6), p.100

37) Kenneth Cragg, The House of Islam (California: Dickenson Publishing Co. Inc., 1969), p.7

38) William M. Watt, Bell's Introduction to the Qur'a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0), p.37

39) John Burton, The Collection of the Qur'a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p.239-40

40) Arthur S. Tritton, Islam, Beliefs and Practice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66), p.18. See also Ahmad Ali al-Imam, Variant Readings of the Qur'an: A Critical Study of Their Historical and Linguistic Origins (London: IIIT, 2006)

41) Philip K. Hitti, The Near East in History (New York: D. Van Nostrand Co., 1961), p.194

42) John L. Esposito, Islam the Straight Pa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23

43) Ernest Gellner, Postmodernism, Reason and Relig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3), p.5

44) Paul Davies, The Mind of God: The Scientific Basis for a Rational World (London: Simon & Schuster, 1992), pp.231-32

**신, 의인화**

줄피까르 알리 샤 지음

초판1쇄 발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인 임인환  
편집인 오승언

번역 쌀립누리 편집부  
편집 조혜련, 오현수, 임인환  
교정 안혜경  
감수 조민행  
디자인 유지원  
진행 김효신, 정현  
인쇄 (주)에스제이 피앤비 SJ PNB  
전자책 5werk

발행처 쌀립누리  
등록일 2016년 1월 21일  
등록번호 제 2016-000005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6-21, 101호  
전자우편 salamnuri.publish@gmail.com  
가격 12,000 원  
ISBN 979-11-955724-7-2

**Salam Nuri** is a group of Muslim youth and students that named it after the Arabic word ‘Salam’ combined with Korean ‘Nuri’ which makes up the meaning ‘Peaceful World.’

Aim of Salam Nuri is to provide sound vision for Islam despite of misunderstanding and epistemological bias that is introduced by western mass media and sharing culture and tradition with Muslim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Salam Nuri is carrying out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research works by inviting relevant outstanding scholars of the world in the academic field and holding youth camps and exhibitions for social activities along with operating Arabic classes and Korean class for public services.

Salam Nuri is a platform to introduce Islam everywhere and a home ground for new Muslims.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 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 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의 의미 탐구를 출판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이슬람 학술, 이슬람 바로알기, 비교종교학, 종교 교양,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다.

[www.salamnuri.net](http://www.salamnuri.net)

쌀람누리

현대인은 왜 신을 믿지 않을까  
그 이유가 종교에서 비롯한 것은 아닐까  
종교에서 제시한 신은 믿을만한 대상일까

같은 신을 믿는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가 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세 종교가 신을 보는 관점을 분석하고 통렬히 비판한다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London-Washington

값 12,000원  
03210  
  
9 791195 572472  
ISBN 979-11-955724-7-2